

碩士學位 論文

韓國政治體制에 대한 政治意識
調査研究

-濟州地域 專門大學生들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韓 錫 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康 喆 勝

1999年 8月

韓國政治體制에 대한 政治意識
調査研究

-濟州地域 專門大學生들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韓 錫 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5月 日



提出者 康 喆 勝

康喆勝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초록>

韓國政治體制에 대한 政治意識 調查研究

-濟州地域 專門大學生들을 中心으로-

康 喆 勝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韓 錫 祉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정치체제에 대한 제주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성별, 학년별, 계열별, 성장지별, 종교 등의 諸變因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배경변인에 따라 정치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알몬드와 포웰의 정치체제 분석모형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諸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이념, 일체감, 정치적 기구, 참여, 정치지도자, 준법, 복지, 안보, 정치적 자유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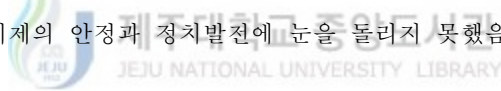
표집방법은 대학별로 직접 찾아가서 직원과 조교들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를 실시 회수하였다. 표집된 인원은 968명이었으나 '성의도검증문항'에 일관성이 없는 반응의 응답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된 표집대상은 845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문항수는 배경변인 5문항과 리커트형 28문항(성의도 1문항 포함)으로 평균(M), 표준편차(S·D), 백분율(%), T-테스트, 변량분석(ANOVA)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현대정치사가 정치적 불안의 악순환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각 정권마다 서로 다투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 실현을 강조하여도 국민 대중의 정치의식과 정치엘리트들의 자질이 상향되지 않고서는 민주정치발전이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국정치가 드러낸 발전저해요인의 주요 원인은 상황적인 것보다 정치인의 자질과 신념에 기인하는 점이 더 크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체념의식이 팽배해지고 학생들은 정치체제에 대하여 민주정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간의 한국 정치가 정치지도자의 권위적 획일주의, 각 정치집단의 분파주의, 여야간의 극한대결과 흑백논리, 대다수 정치인들의 부패 등으로 발전저해의 진통을 겪어왔다.

이념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치적 기구, 정치지도자, 복지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식인 특유의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안보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와 높은 준법의식,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높은 개혁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민주시민이 되고자하는 욕구와 민주시민자질을 소유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 자연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학생이 더 많은 부정적인 의식을 소유하는 것은 정치 그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성별의 내면적 속성, 교육환경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년별에 따라 약간의 부정적인 의식을 소유하지만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출신지와 종교에 따라서 정치의식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적어도 제주도 지역에서 출신지와 종교는 정치의식이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체제는 내면에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호작용 하는 집단인 정치적 기구에 대하여 부정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정치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시대정신과 역사의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지도이념을 그것과 접맥시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해 가는 정치지도자와 전국민 개개인의 복리가 보장된 정의로운 부의 분배라 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하여 안정하지 못한 성향이 있고, 정치발전에 있어서도 안정하지 못한 성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정치체제의 안정과 정치발전에 눈을 돌리지 못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目 次

I. 序 論	1
II. 理論的 背景	3
1. 政治意識의 內容分析	3
2. 政治體制의 內容分析	6
3. 下位構造의 內容分析	8
III. 研究 方法	14
1. 調查道具	14
2. 標集	14
3. 資料處理	16
IV. 研究 結果와 論議	17
1. 體制	17
2. 過程	24
3. 政策	32
V. 結 論	42
參 考 文 獻	46
Abstract	47
附 錄	49

表 目 次

<표 1> 대학별 질문지 실시대상자수와 회수현황	15
<표 2> 배경변인별 표집인원	15
<표 3>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구별능력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8	
<표 4> 국가이념의 이해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9
<표 5> 체제이념의 합법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20
<표 6> 국가이익을 우선태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22
<표 7> 민족적 자부심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22
<표 8> 한국민의 민주주의 수행능력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22
<표 9> 국민의사 반영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23
<표 10> 국회의 필요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23
<표 11> 국회·정당의외의 단체의 필요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24
<표 12> 정치적 효능감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25
<표 13> 정치적 관심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25
<표 14> 정치적 참여기회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26
<표 15> 국민요구 만족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28
<표 16> 정치지도자의 이타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29
<표 17> 강력한 지도력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30
<표 18> 법률적용의 평등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30
<표 19> 법률제도의 상대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31
<표 20>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의지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32
<표 21> 빈곤의 책임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33
<표 22> 분배적 소외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34
<표 23> 복지선택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35
<표 24> 북한의 남침가능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37

<표 25>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38
<표 26> 정부의 치안 관심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39
<표 27> 안보와 통제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40
<표 28> 위상의식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40
<표 29> 국내질서와 통제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41



I. 序 論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변동의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우리 나라의 근대사가 물질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반면에 사회적 규범과 정치질서의 혼란과 파행을 수반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이 사회적 불안·정치적 후진성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발전은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성숙된 정치의식과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치발전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며, 현재의 우리 나라는 정치발전을 통해 정치후진성을 극복하고 사회안정을 이룩해야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치의식의 문제는 정치연구의 기본적 과제이며 국민의 정치의식 昂揚은 모든 정책의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치의식의 핵심은 정치에 대한 관심에 있으며 정치의식의 배양을 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라는 조직체의 운영에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남들과 협동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보장인 것이다.

현대정치는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됨에 따라 정치발전과 안정은 그 사회 각 성원의 정치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치발전과 안정은 오로지 위정자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만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는 정치의 주체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동향이 크게 문제로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 정치의식과 정치체제의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정치적 환경과 대상은 가변적이고,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 역시 가변적일 수밖에 없기에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대학생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을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나 비교적 지속적인 정치의식을 파악하는데 있다.

셋째, 제주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성별, 학년, 계열별, 출신지, 종교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사 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을 조사하는 시한적인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식구조의 시간적인 변화내용을 비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체제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둘째, 논리적으로 볼 때,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정치적 대상에 대한 별개의 독립적 연구가 요망되나 본 조사에서는 단지 선행연구에 입각한 개념설정과 조작적 정의에 기초로 하여 구체적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政治意識의 內容分析

정치意識 對한 概念정의는 多樣하며, 이와 유사 한 概念들도 많이 쓰이고 있어 어느 觀點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間接한 정의를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政治意識이라는 概念을 우리 國家에서는 一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外國의 學者들은 대부분 政治문화, 政治적 性向, 政治적 信念, 그리고 政治적 態度 등 유사한 概念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外國에서 사용되고 있는 政治意識과 유사 한 概念들에 對한 定義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政治문화의 概念 定義를 보면, 알몬드(Gabriel A. Almond)와 버바(Sidney Verba)는 政治문화란 政治체계가 주민들의 인지·정의·평가에 對한 內면화된 것이다. 한 國家의 政治문화는 그 國家의 구성원들에게 政治대상에 對한 문제의 유형적 특수한 分배이다. 性向은 대상과 關係의 內면화된 面이며 그것은 인지적 性向, 정의적 性向과 평가적 性向을 포함한다.¹⁾ 파이(Lucian W. Pye)는 政治문화란 政治과정에 질서와 의미를 주고 그리고 政治체계내의 行태를 지배하는 기초가 되는 가정과 규칙을 제공하는 제태도·제개념과 제감정의 集합이다.²⁾ 라고 定義했다.

政治태도에 對한 定義는 마시알라스(Byron G. Massialas)는 政治태도를 政治문화의 한 양태로 보고 있다. 즉 政治문화는 政治적 구조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政治질서에 對한 인지적 性向 뿐만 아니라 個人的 態度와 느낌을 포함한다고 하였다.³⁾ 캠벨(D. T. Campbell)은 政治태도를 “政治대상에 對한 個人的 고유한

1) Gabriel A. Almond & Sidney Verba(1965).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Development*(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4~15. ;

朴容憲(1980), 「韓國思想과 倫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310에서 재인용

2) Lucian W Pye(1980), "Political Culture", David I.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2, P. 218. ; 李克燦(1997), 「政治學」, 法文社, p.302에서 재인용

3) Byron G. Massialas(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P. 9. : 金恒元 외(1987), “濟州道 大學生의 政治意識에 對한 調

산재적 경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내면화된 신념과 태도 즉 정치 체제, 그 역할, 역할 진행 수행자, 그 투입과 산출 등에 대한 지식과 신념(인지적 성향), 감정(정의적 성향), 의견과 판단(평가적 성향)이라고”⁴⁾ 정의하였다.

정치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체제, 그 역할, 역할수행자, 투입과 산출, 적극적 참여자로서 자아를 정치문화 대상으로 삼았으며⁵⁾ 파이는 전통, 공적 제도와 그 이념, 시민의 감정(passions), 집단적 이성화(collective reasoning), 지도자의 지도유형 및 그 운영규칙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⁶⁾ 버바는 국민적 주체성, 동료시민과의 일체감, 정부의 산출에 대한 신념,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신념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⁷⁾ 알몬드와 포웰은 ‘체제’를 정치구조 내지 기구와 그들간의 관계구조는 물론 정치적 권위, 합법성, 국가 동일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과정’을 정책의 수행과정은 물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성향, 정치적 참여, 정치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대외관계 및 정치수행자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책’을 정책결정 수행 및 행위에 대한 평가는 물론 사회복지 및 안전, 기회균등, 자유 등을 포함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평가와 이상적 사회상, 계층 및 집단 동일시, 정치적 자유와 권리, 의무에 대한 인식성향을 포함한 개념으로 분류하였다.⁸⁾

查研究”, 「논문집」, 제24집, 제주대학교, p.341에서 재인용

- 4) Gabriel A. Almond & Sidney Verba(1965).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Development*(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4. ; 朴容憲(1980), 「韓國思想과 倫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310에서 재인용
- 5) Gabriel A. Almond & Sidney Verba(1965).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Development*(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6. : 張碩峯(1990), “韓國大學生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p.9에서 재인용
- 6) L. W. Pye and S. Verba(1965),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 Press), pp.7~8. : 張碩峯(1990), “韓國大學生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p.9에서 재인용
- 7) L. W. Pye and S. Verba(1965),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 Press), pp.526-554. : 張碩峯(1990), “韓國大學生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p.9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정의되고 있는 정치의식의 개념정의를 보면, 咸義英은, 정치의식이란 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정치사상 또는 정치문제에 대하여 갖는 인식·평가·태도를 총칭하여 정치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치의식은 미국에서 발달된 정치문화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⁹⁾ 鄭允武는 정치의식의 형성과정을 정치적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라고 하며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 것을 정치문화라 하고 정치에 대한 反應을 정치적 태도(Political attitude)라고 하며 그 표출현상은 정치행태라고 한다.¹⁰⁾ 李克燦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그 사회의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일이 많다¹¹⁾고 하였다.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 李廷植은 알몬드와 버바의 시민문화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분석개념을 적용하여 정치적 인식형태, 정치·정부에 대한 감정상태, 당파심의 정도, 정치참여자 형태 등을 대상으로 삼았으며¹²⁾ 李京求是 생활의식, 투표와 정당, 정당관을 다루었고,¹³⁾ 田溶新은 종교, 남녀의 성문제, 범죄자의 대우문제, 국가의 권한, 약한 자의 동정, 국가가 시급히 해야 할 일, 생활태도 등을 정치적 태도의 기본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⁴⁾ 李洪九는 정치적 관심과 지식, 정치적 의사소통, 정치적 관점과 규범, 정치능력과 참여 등을 다루었다.¹⁵⁾

정치학 대사전에서는 정치의식을 정치적 사상과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평가·태도의 총체이며, 정치적 행동의 선택으로 인도하는 의견·판단·인상·감각 등의 정신작용이다.¹⁶⁾

8) Gabriel A. Almond & G. Bingham Powell, Jr.(1978), *Comparative Politics : System, Process and Policy*, 2nd ed.(Boston : Little and Co.), pp. 25-51.

9) 咸義英(1972), “정치의식의 민주화,” 「논문집」 제5집, 연세대학교, P. 63.

10) 鄭允武(1982), 「現代政治心理論」, 博英社, pp. 12~13.

11) 李克燦(1997), 「政治學」, 法文社, pp. 153~154.

12) 李廷植(1965), “韓國政治文化의 分析研究,” 「논문집」, 제2집, 동국대학교, pp. 109~157.

13) 李京求(1968), “都市民과 地方民의 政治意識比較研究,” 「논문집」, 제13집. 성균관대학교, pp. 75~194.

14) 田溶新(1969), “韓國大學生의 政治的 態度,” 「논문집」, 제15집, 고려대학교, pp. 33~51.

15) 李洪九(1977), “韓國의 政治文化와 政治發展,” 韓國政治學會報, 第11輯, pp. 114~134.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정치의식이라는 내용은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개념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政治體制的 內容分析

정치체제는 모든 독립된 사회에서 발견되는 상호작용의 체제로서 다소의 물리적 강제의 사용 혹은 그 사용의 위협을 통하여 통합과 적응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¹⁷⁾ 그 특성에는 포괄성, 상호의존성, 경계의 존재가 포함된다.

알몬드는 1960년에 시도한 7개의 기능적 범주를 대폭 수정하여 세 차원의 기능, 즉, 體系의 能力, 轉化機能, 體制維持 및 適應機能을 재정립하였다.¹⁸⁾ 체제의 능력은 체제가 하나의 단위로서 다른 사회체제와 환경에 대하여 작용하는 산출을 말하며, 그것은 規律·抽出·分配·反應·象徵의 諸能力을 포함한다. 轉化機能은 투입을 산출로 변형시키는 것이며, 요구와 지지를 권위적 결정으로 바꾸고, 그것이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이익표출, 이익집약, 규칙제정, 규칙적용, 규칙판결,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6개의 기능이 포함된다. 그리고 체제유지 및 적응기능은 정치사회화와 정치충원을 포함하는데, 이에 의하면 정치체제는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그 자신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13개의 기능 외에 알몬드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을 논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치문화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발전의 그것이다. 정치문화는 정치체제의 기능은 아니며, 13개의 기능과 논리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체제수준의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정치발전에 대한 논의는 그 발전적 접근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16) 鄭仁與 外(1983), 「政治學 大辭典」, 博英社, pp. 1348~1350.

17) Gabriel A. Almond(1960), "Introduction : A Functional Approach to Comparative Politics." in Gabriel A. Almond & James S. Coleman(eds),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princeton, N. J. : Princeton Univ. Press), p.17.

18) Gabriel A. Almond & G. Bingham Powell, Jr.(1966), *Comparative Politics :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 Little and Co.), pp.28-29.

있는데, 알몬드는 국가건설·국민건설·참여·분배와 연관시켜서 정치체제의 구조적 분화·문화적 세속화·하위체계의 자율성증가를 정치발전의 지표로 보았던 것이다.

알몬드는 발전적 접근 대신 체제·과정·정책이라는 새로운 副題를 달고서 초판의 내용을 수정하였다.¹⁹⁾ 체제의 차원에서는 체제의 유지 및 적응능력으로서 사회화·충원 및 커뮤니케이션기능을 논의하고, 과정의 차원에서는 전화기능으로서 이익표출·이익집약·정책형성 및 집행의 諸機能을 설명한다. 여기서 알몬드는 정치적 요구와 지지를 형성하고 결합하여, 그것을 권위 있는 정책으로 전화시키고, 다시 그것을 국내적 또는 국제적 환경에 이행하는 다양한 정치적 구조 이익집단·정당·정치적 집행부·입법부·관료 등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다만 종래 6개의 전화기능에서 정책의 적용과 정책의 판결로 구분하던 것을 하나의 집행기능으로 처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기능으로 본 것이 약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과정·정책 접근에서 알몬드가 강조한 것은 정책수행이며, 발전적 접근에서 논의한 체제의 능력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정책의 결과를 산출로부터 분리시키고, 나아가 정치체제의 업무수행의 솜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있다.²⁰⁾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발전적 접근에서 알몬드가 사회학적·인류학적 내지는 심리학적 분석방식을 원용하여 정치의 특성을 사회구조적 또는 문화적 조건에 국한시킴으로써, 정치를 일종의 종속변수로 취급하였던 것과는 달리, 체제·과정·정책 접근에서는 정치를 독립변수로, 사회 및 국제환경을 종속변수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식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인 것이다. 또 정책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유행하는 정치경제접근의 입장에서 시도되었고, 정치구조와 과정을 정치적 선택의 결과와 연관시킴으로써 구조와 기능 및 정책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²¹⁾

이상과 같은 정치체제의 체제-과정-정책의 세 개 수준의 기능들간에 균형이

19) Gabriel A. Almond & G. Bingham Powell, Jr.(1978), *Comparative Politics : System, Process and Policy*, 2nd ed.(Boston : Little and Co.).

20) *Ibid*, p.15.

21) *Ibid*, p.vi.

이루어져야만 체제의 안정이 이루어진다. 즉 같은 구조들이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려면 체제, 과정 및 정책에 ‘同時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정수준’에서 이익집단이나 정당들이 이익표명과 집약의 기능들을 수행하려면, ‘체제수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인 충원, 시민문화의 사회화, 자율적 언론과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충족되어야 하고, ‘정책수준’에서는 수용, 규제, 배분, 상징적 능력 등이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휘될 때 동시화와 체제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도움을 받았으며 알몬드와 포웰이 체제, 과정, 정책으로 분류한 정치체제분석모형을 기초로 하여 세 가지 분석차원에서 하위구조를 설정하였다.

3. 下位構造의 內容分析

1. 체제

체제수준(system level)의 기능은 체제의 유지와 적응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정치적 충원, 정치사회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 “충원”이란 어떤 역할 속에 개인을 배속하고 또한 그 역할의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뜻한다. 엘리트나 피치자의 역할과 관련된 충원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역할 수행에 수반되는 유도방법 등이 충원의 기본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충원은 정치체제의 제역할이 채워지는 기능을 말하며, 정치사회화와 더불어 체제의 유지 및 적응기능의 하나이다.²²⁾

정치사회화란 정치문화의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일정한 정치적 정향이나 태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여, 그것을 기준 삼아 행동하게 됨으로써 많거나 적거나 자기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 가게 된다. 이리하여 정치사회화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개인은 하나의 정치적 자아를 획득하게 된다. 정치적 자아는 개인의 정치에 대한 태도나 감정이나 신념이나 인식의 총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

22) *Ibid*, p.65.

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태도나 평가,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애국심과 같은 감정적인 것, 정치에 관한 지식, 어떤 집단이나 파벌과의 일체화, 정치의 세계에서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다.²³⁾

정치사회화는 모든 정치체제 안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가정·학교·커뮤니케이션의 제매체·종교·직장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태도를 발전시키거나 혹은 특정한 정치·행정 내지는 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민을 훈련시키는 각종의 정치적 구조를 포함한다.²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체제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간의 정보의 전달을 의미한다. 라디오나 TV 같은 매스 미디어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에 동원되는 구조물들로서, 비공식적인 대면접촉, 비정치적인 사회구조(가정, 경제적 및 종교적 집단), 정치의 투입구조(정당), 정치적 산출구조(집행부, 입법부) 등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통신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보전달의 기능수행상의 자율성과 통제의 문제, 통신망의 확대가 가져오는 사회적 동원의 결과 등이 고려될 수 있다.²⁵⁾ 정치커뮤니케이션, 즉 정치체제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는 행정체제와 사회체제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체제의 행태적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체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체제에 당위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이념, 개인들이 스스로를 체제의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자신과 체제사이에 형성된 일체감, 체제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서 가치의 권위적 분배를 하는 정치적 기구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과정

정치체제의 기능은 “과정의 수준”에서 이익표출, 이익집약,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네 가지로 세분된다. 주로 체제의 내부에서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는 이러한 기능들은 알몬드 이론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익표출”이란 정치체제에 대한 요구행위이다. 각종 이익집단이나 개인들은 정책의 변화나 지속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하게 마련이다.²⁶⁾

23)李克燦(1997), 「政治學」, 法文社, p. 308.

24)崔明(1963), 「比較政治學序說」, 法文社, p.88-89.

25) Gabriel A. Almond & G. Bingham Powell, Jr.(1978), *op. cit.*, pp.141-166.

정치과정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요구를 행할 때 시작된다. 그러한 요구의 행위를 이익의 표출이라고 부른다. 이익의 표명은 다양한 구조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아주 원시적이고 단순한 정치체계에 있어서는 이익표출을 위한 전문화된 구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정치체계에서는 주로 이익표출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들이 발견된다.²⁷⁾

이익의 표출 자체와 그것이 권위적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진화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익집단들은 각기 다른 이익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고, 또 요구의 성공도 이익표출·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전과정에 의존한다. 다만 이익의 표출은 이 과정에 있어서 첫 단계일 따름이다.

이익의 표출은 반드시 조직된 집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된 이익집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색이고 보면, 그것이 정당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조직된 이익집단과 정당을 구별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조직이지만, 공직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²⁸⁾ 이에 반하여 정당은 공직의 획득을 추구하고, 혁명적 정당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직체계를 폭력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공직을 창설한다. 그러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단체가 정부의 직접적이고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비록 이익집단의 간부나 구성원이 선거직에 선출된다고 하여도 단체 자체가 정부의 공직을 보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익집단과 정당과의 구별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익집단과 정당의 구성이 중복되는 경우도 흔히 보는 바이며, 더구나 이익집단이 정당의 입후보자 선출에 깊게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표로 참여하는 수도 많다.

“이익집약”이란 체제에 투입된 요구들을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요구는 상당한 정치적 자원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때, 주요한 정책의 대안으로 둔갑한다. 여기서 정치적 자원은 예컨대 특정의 후보를 지지하는

26) *Ibid*, pp.169-176.

27) 崔 明(1963), 「比較政治學序說」, 法文社, p.207.

28) N. C. Hunt(1956), "Pressure Groups in the USA," *Occidents*, Vol. 12, p.114. : 崔 明(1963), 「比較政治學序說」, 法文社, p.207-208에서 재인용

유권자의 투표, 입법자(국회의원 등)의 투표, 관료집단의 지지, 혹은 군사력의 사용 등을 포함하는데, 그 자원은 결국 정책형성을 위하여 동원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요구가 주요한 정책의 대안이 되기 위하여는 그 정치체제 내에서 중요시되는 자원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익집약은 요구를 정책의 대안 속에 집어넣고, 그러한 대안의 면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²⁹⁾

그리하여 정당이 노조나 기업집단 또는 인종집단들의 요구와 불평을 받아서 토의, 거래와 타협을 거쳐 정당의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선거일에 특정한 정당에 대한 투표자들의 지지를 동원하는 것은 이익집약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책형성”은 이익의 표명, 집약을 통하여 몇 개의 대안으로 구체화된 “유효한 요구들”을 권위적인 결정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이다. 여기서는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권위의 범위와 한계, 정부기관간의 권력분립, 조직과 절차상의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결정규칙” 또는 헌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책집행”은 각종 정책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능으로서, 이 과정에서는 관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고급공무원의 구성, 그들의 정치·문화적 특성과 자질을 비롯하여 관료제 전반의 책임과 능력 등이 집행과정의 결과를 좌우한다.³⁰⁾ 정치과정은 정책의 수행과정은 물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성향, 정치적 참여, 정치과정에서의 영향력행사, 대외관계, 정치수행자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분석적 목적을 위하여 이 과정을 이익표출, 이익집약, 정책결정, 정책수행의 네 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하여 국민들은 정치적 기구에 대한 인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영향확신감과 영향행사방법, 정당과 동일시, 거리감,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 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치과정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영향확신감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는 참여, 가치의 권위적 분배와 집단목표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지도자, 정책의 형성으로 표현된 각종 법률준수와 적용을 포함한 준법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9) Gabriel A. Almond & G. Bingham Powell, Jr.(1978), *op. cit.*, pp.198-231.

30) *Ibid.*, pp.256-279.

3. 정책

정치체제의 기능은 “정책의 수준”에서 밖으로 다른 사회체제들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다. 주로 정치체제의 산출로서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기능들은 수용, 분배, 규제, 상징적인 것 등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³¹⁾ “수용”은 자원의 차출능력을 말하며, 정치체제의 “수용능력”은 차출된 사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용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들의 분포상태로 측정될 수 있다. “분배”란 경제적 재화, 서비스(교육, 건강, 위생, 오락 등), 제반가치(신분, 위광, 공동체 의식, 안전) 등의 배분을 말하며, 사회적 총생산이 사회 내의 여러 집단에 어떠한 비율로 배분되고 그로 말미암은 득실이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좌우한다. “규제”는 범죄의 처벌, 의무의 이행, 도량형의 규제 등을 포함하여, 정치체제의 규제 능력은 규제되는 행위의 종류, 규제되는 집단들,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상 제약, 제재의 강도 등에 좌우된다. “상징적 능력”은 상징과 정보의 통신과 관련된 능력을 말하며, 정치적 연설, 의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³²⁾ 정책은 정책결정수행 및 행위에 대한 평가는 물론 사회복지, 안정, 기회균등, 자유 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이상적 사회상, 계층 및 집단동일시, 정치적 자유와 권리, 의무에 대한 인식성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당의 분배로서의 복지, 공격에 대한 방어나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내외적인 안보, 국가의사형성에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복지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의식의 과정은 외계의 사물이나 사상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지각을 거쳐 그 지각요소들을 암기, 해석, 이해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과정을 거쳐 그 인지과정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감정이 야기되고 그 감정은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정치의식의 기초적인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 단계 더 고차적인 신념과 태도가 형성된다. 신념과 태도는 외계의 사물이나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 내지 행동을 보이하고자하는 내적 의식성향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 것이나 신념은 보다 인지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며, 태도는 감정적 성향이 강한 특성으로 두 개념은 구별된다.

31) *Ibid.*, pp.286-314.

32) 吳明鎬(1996), 「現代政治學方法論」, 博英社, pp.361-362.

이와 같이 정치의식요소들의 상호 연관적인 구조화를 생각해 볼 때 정치체제와 관련한 정치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식, 감정, 평가별로 문항을 구별하지 않고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하위구조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Ⅲ. 研究 方法

1. 調査道具

정치체제 분석모형을 토대로 측정도구를 제작하였으며 질문지의 문항은 선행 연구들의 내용 및 문항들을 분석·수정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들을 심리적 성향에 따라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체제와 관련하여 9문항, 과정과 관련하여 9문항, 정책과 관련하여 9문항, 배경조사 5문항, 그리고 1개의 성의도 검증문항 등 총 33문항이다. 문항들은 각 문항마다 5단계의 반응답지가 주어지는 Likert 식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확실히 그렇다’에 5점, ‘그런 것 같다’에 4점, ‘잘 모르겠다’에 3점, ‘아닌 것 같다’에 2점, ‘확실히 아니다’에 1점으로 배점하여 반응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전체적으로 해석하였다.

2. 標集



제주도 전문대학생의 모집단을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내 3개 전문대학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생수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관광대학 200명, 제주산업정보대학 500명, 제주한라대학 320명 등 총 1,0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1999년 3월 3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질문지를 실시·회수하였다. 질문지 회수방법은 각 대학의 직원과 조교들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를 실시·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방법이 갖고 있는 단점인 각 문항에 대한 반응에 대한 성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른바 誠意度 檢證方法을 적용했다. 이 같은 성의도검증을 위하여 한 쌍의 문항을 반대방향으로 진술하여(문항 6번과 14번) 그 반응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실시결과는 다음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질문지를 실시

하여 회수된 수는 968명이었다.

<표-1> 대학별 질문지 실시대상자수와 회수현황

대 학	실시대상자수	회 수	회수율(%)
제주관광대학	200명	185명	92.5
제주산업정보대학	500명	468명	93.6
제주한라대학	320명	315명	98.4
계	1,020명	968명	94.9

표집된 총 968명 중 질문지의 전 문항에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위해서 지적인 '성의도검증문항'에 일관성이 결여된 123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취급된 표집수는 845명이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표집의 배경변인별수는 <표-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2> 배경변인별 표집인원

배경변인	변 인 구 별					계
	남	여				
성 별	274	571				845
학 년 별	1학년 422	2학년 423				845
전 공 별	자연계열 401	인문사회계열 444				845
출 신 지	제주시 296	서귀포시 143	남제주군 143	북제주군 177	기 타 86	845
종 교	기독교 168	불 교 264	천도교 32	기타종교 23	무 교 358	845

3. 資料處理

수집된 자료들은 제주한라대학 행정전산조정과 고종남선생이 도움을 얻어 전산처리 하였고, 통계치는 평균(M),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및 제시 방법은 전체에 평균(M)과 백분율(%)을 가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5단계의 반응 분포를 대체로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것 같다’를 합쳐 ‘그렇다’로 ‘아닌 것 같다’와 ‘확실히 아니다’를 합쳐 ‘아니다’로 합산 제시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차의 意義度檢證은 T-테스트, 변량분석(ANOVA) 등을 적용시켰으며, 각 집단에 차이가 거의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IV. 研究 結果와 論議

정치체제분석모형에서 제시한 하위 구조에 따른 27개의 구체적인 대상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정치체제분석모형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한 전체응답자의 반응성향 및 반응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표집 대상의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성향을 해석하고 논의하며, 셋째, 전체 및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각 문항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결과를 종합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1. 體制

1) 이념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상·신념의 체계로서 이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구별능력, 국가이념의 이해도, 체제이념의 선호도 등을 설정하였다.

<표-3>에서와 같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구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72%가 긍정적인 반응(M=3.85)을, 18%가 자신 없는 입장, 그리고 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반응성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0.005), 종교별(P<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M=3.85)가 남자(M=3.85)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학년별로는 2학년(M=3.85)이 1학년(M=3.85)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출신지별로는 기타(M=4.06), 북제주군(3.88), 제주시(3.83), 서귀포시(M=3.85), 남제주군(M=3.7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별로는 기타종교(M=4.17), 기독교(M=3.93), 무교(M=3.84), 불교(M=3.84), 천도교(M=3.4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구별능력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3.85	0.93	23.9	48.5	18.3	7.2	2.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 인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M	S · 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32.4	3.85	1.07	32.364 ^{***}	33.6	31.8	23.7	8.0	2.9
	여	67.6	3.85	0.86		19.3	56.6	15.8	6.8	1.6
학 년 별	1학년	49.9	3.85	0.97	6.102	26.8	42.9	20.9	7.3	2.1
	2학년	50.1	3.85	0.90		21.0	54.1	15.8	7.1	1.9
전 공 계열별	인문·사회계	46.6	3.80	0.94	0.720	20.9	51.4	16.7	8.8	2.3
	자연계	53.4	3.90	0.91		26.6	45.7	20.6	5.6	1.5
출시지별	제 주 시	35.0	3.83	0.91	0.869	20.9	52.0	18.2	6.4	2.4
	서귀포시	16.9	3.85	0.96		28.0	39.9	21.0	11.2	0.0
	남제주군	16.9	3.74	0.93		17.5	51.7	21.7	5.6	3.5
	북제주군	21.0	3.88	0.93		23.7	52.0	14.7	7.3	2.3
	기 타	10.2	4.06	0.94		37.6	38.8	16.5	5.9	1.2
종 교 별	기 독 교	20.0	3.93	0.83	4.061 [*]	24.4	50.0	20.2	4.8	0.6
	불 교	31.2	3.84	0.91		23.9	45.8	21.6	7.6	1.1
	천 도 교	3.8	3.44	1.29		21.9	37.5	12.5	18.8	9.4
	기타종교	2.7	4.17	0.94		43.5	39.1	8.7	8.7	0.0
	무 교	42.3	3.84	0.95		22.4	51.5	16.2	7.0	2.8

(* : p < 0.05, *** : p < 0.005)

<표-4> 국가이념의 이해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3.42	0.92	13.1	28.3	48.4	7.3	2.8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 인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M	S · 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32.4	3.54	0.98	10.352 ^{**}	20.1	26.3	43.8	6.9	2.9
	여	67.6	3.37	0.88		9.8	29.2	50.3	7.5	2.8
학 년 별	1학년	49.9	3.45	0.93	0.241	14.0	28.9	47.9	5.7	3.3
	2학년	50.1	3.39	0.91		12.3	27.7	48.5	9.0	2.4
전 공 계열별	인문 · 사회계	46.6	3.42	0.91	0.049	12.6	29.1	48.2	7.0	2.9
	자 연 계	53.4	3.42	0.92		13.5	27.2	48.7	7.9	2.5
출시지별	제 주 시	35.0	3.48	0.89	0.785	13.9	29.4	48.6	5.4	2.4
	서귀포시	16.9	3.31	0.90		14.0	17.5	55.9	11.2	1.4
	남제주군	16.9	3.36	0.98		11.2	30.8	44.1	8.4	4.9
	북제주군	21.0	3.62	0.90		10.2	30.5	47.5	8.5	3.4
	기 타	10.2	4.00	0.91		18.8	32.9	42.4	3.5	2.4
종 교 별	기 독 교	20.0	3.48	0.94	2.217	16.1	28.6	44.6	8.3	2.4
	불 교	31.2	3.37	0.85		9.5	28.4	52.3	7.2	2.3
	천 도 교	3.8	3.37	1.18		21.9	18.8	43.8	6.3	9.4
	기타종교	2.7	3.74	0.96		17.4	52.2	21.7	4.3	4.3
	무 교	42.3	3.42	0.96		13.2	27.5	49.0	7.3	2.8

(** : p < 0.01)

<표-4>에서는 국가이념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우리의 국가이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반응자의 41%가 긍정적인 반응(M=3.42), 48%가 미결정 상태, 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반응 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0.01)에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M=3.45)이 2학년(M=3.39)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신지별로는 기타(M=4.00), 북제주군(M=3.62), 제주시(M=3.48), 남제주군(M=3.36), 서귀포시(3.3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별로는 기타종교(M=3.74), 기독교(M=3.48), 무교(M=3.42), 불교(M=3.37), 천도교(M=3.3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에서는 체제이념의 합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체제이념은 국제적으로 북한보다 더 많은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61%가 긍정적인 반응(M=3.68)을 보였으나 28%가 미결정 상태, 1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반응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0.01)에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1학년(M=3.72)이 2학년(M=3.64)보다 체제이념 합법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문·사회계열(M=3.72)은 자연계열(M=3.62)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출신지별로는 기타(M=3.82), 서귀포시(M=3.70), 제주시(M=3.67), 남제주군(M=3.66), 북제주군(M=3.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M=3.86), 천도교(M=3.75), 기타종교(M=3.74), 무교(M=3.64), 불교(M=3.6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체제이념의 합법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3.68	0.96	19.8	41.2	28.5	8.2	2.4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 인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M	S · D	F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32.4	3.68	1.05	15.7 ^{**}	26.6	30.3	30.3	10.2	2.6
	여	67.6	3.68	0.91		16.5	46.4	27.7	7.2	2.3
학 년 별	1학년	49.9	3.72	0.93	0.556	22.0	37.7	31.5	7.8	0.9
	2학년	50.1	3.64	0.99		17.5	44.7	25.5	8.5	3.8
전 공 계열별	인문 · 사회계	46.6	3.72	0.93	2.784	20.3	43.0	27.3	7.7	1.8
	자 연 계	53.4	3.62	0.99		18.8	39.1	30.2	8.9	3.0
출시지별	제 주 시	35.0	3.67	0.97	1.495	20.3	39.2	30.7	6.8	3.0
	서귀포시	16.9	3.70	1.04		24.5	37.1	25.2	10.5	2.8
	남제주군	16.9	3.66	0.96		18.2	43.4	26.6	9.8	2.1
	북제주군	21.0	3.63	0.90		14.1	46.3	29.9	7.3	2.3
	기 타	10.2	3.82	0.90		24.7	41.2	25.9	8.2	0.0
종 교 별	기 독 교	20.0	3.86	0.97	1.334	26.2	44.0	22.6	3.6	3.6
	불 교	31.2	3.61	0.93		16.7	39.0	34.8	7.2	2.3
	천 도 교	3.8	3.75	1.14		28.1	40.6	12.5	15.6	3.1
	기타종교	2.7	3.74	1.05		30.4	26.1	30.4	13.0	0.0
	무 교	42.3	3.64	0.95		17.6	42.3	28.0	10.1	2.0

(** : p < 0.01)

2) 일체감

개인이 자신을 스스로 속해있는 국가구성원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신과 국가사이에 형성된 그리고 자신과 국민사이에 형성된 ‘우리감정’으로서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포함하는 일체감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이익 우선 태도, 민족적 자부심, 한국민의 민주주의 수행능력 등을 설정하였다.

<표-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이익 우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택하겠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

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2%가 긍정적인 반응(M=3.11)을, 44%가 중립적인 반응을, 그리고 23%가 개인이익 우선 태도 보였다.

<표-6> 국가이익을 우선 태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3.11	0.99	8.0	23.9	44.1	18.2	5.7	100

<표-7>에서는 민족적 자부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한국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 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0%가 긍정적인 반응(M=3.70)을, 1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7> 민족적 자부심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3.70	1.07	25.8	34.7	25.3	11.1	3.0	100

<표-8> 한국민의 민주주의 수행능력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3.46	1.09	19.9	29.7	30.9	15.6	3.9	100

<표-8>에서는 한국민의 민주주의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키워나갈 능력과 자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49%가 긍정적인 반응(M=3.46)을 보였으나 1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정치적 기구

가치의 권위적 분배를 하는 정치적 기구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당의 국민의사 반영도, 국회의 필요성, 국회·정당의 인식도 등을 설정하였다.

<표-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당의 국민의사 반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당들은 개인이나 사회의 이익과 감정을 수렴하기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응답자의 11%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M=2.33), 57%가 정당들이 국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표-9> 국민의사 반영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2.33	1.01	2.7	8.9	27.4	39.5	21.4	100

<표-10> 국회의 필요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2.61	1.14	6.3	16.3	27.1	32.8	17.5	100

<표-10>에서는 국회의 필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회가 없더라도 정치는 잘 될 수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응답자의 5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M=2.61), 22%가 국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표-11>에서는 국회·정당 이외의 단체의 필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회·정당 이외에도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조직과 단체가 더 있어야 한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응답자의 76%가 긍정적인 반응을(M=4.03) 보이고 있다.

<표-11> 국회·정당 이외의 단체의 필요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45	4.03	0.96	36.1	40.0	16.9	4.7	2.2	100

2. 過程

1) 참여

가치의 권위적 분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구성원들의 직접·간접으로 또는 개인적 집단적인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전체적인 현상으로써의 정치참여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참여기회 등을 설정하였다.

<표-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치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투표행위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표-12> 정치적 효능감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2.81	1.06	5.9	20.0	32.3	32.2	9.5	100

<표-13> 정치적 관심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2.97	1.17	8.5	29.7	22.4	28.5	10.8	100

<표-13>에서는 정치적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정치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응답자의 38%가 긍정적인 반응을(M=2.97) 보인 반면에 또한 3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14>에서는 정치적 참여기회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71%가 정치에 참여기회를 바라는 긍정적인 반응을(M=3.89) 보이고 있으며, 10%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자(M=3.98)가 남자(M=3.72)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2학년(M=3.94)이 1학년(M=3.84)보다 정치적인 참여기회를 더 바라고 있고 인문·사회계열(M=3.95)학생이 자연계열(M=3.85)학생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신지별로는 서귀포시(M=3.94), 북제주군(M=3.93), 제주시(M=3.88), 남제주군(M=3.86), 기타(M=3.8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별로는 기타종교(M=4.17), 기독교(M=4.03), 불교(M=3.88), 무교(M=3.88), 천도교

(M=3.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4> 정치적 참여기회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845	3.89	1.06	32.2	39.2	18.1	6.2	4.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 · 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32.4	3.72	1.12	14.217 ^{**}	28.1	34.3	23.7	8.8	5.1
	여	67.6	3.98	1.02		34.2	41.5	15.4	4.9	3.9
학년별	1학년	49.9	3.84	1.02	0.187	28.7	40.5	20.6	6.9	3.3
	2학년	50.1	3.94	1.10		35.7	37.8	15.6	5.4	5.2
전공 계열별	인문·사회계	46.6	3.95	1.01	6.275	32.7	41.0	17.3	5.4	3.4
	자연계	53.4	3.85	1.10		32.2	36.8	19.0	7.1	4.8
출시지별	제주시	35.0	3.88	1.09	2.454	33.8	36.5	17.9	7.4	4.4
	서귀포시	16.9	3.94	1.10		35.7	38.5	15.4	4.9	5.6
	남제주군	16.9	3.86	1.03		30.1	38.5	22.4	5.6	3.5
	북제주군	21.0	3.93	0.95		26.6	48.0	17.5	4.5	2.8
	기타	10.2	3.86	1.18		36.5	32.9	16.5	8.2	5.9
종교별	기독교	20.0	4.03	1.02	0.752	36.9	39.3	14.3	6.0	3.0
	불교	31.2	3.88	1.07		33.0	37.5	17.4	8.7	3.4
	천도교	3.8	3.25	1.11		9.4	37.5	31.3	12.5	9.4
	기타종교	2.7	4.17	1.03		47.8	30.4	17.4	0.0	4.3
	무교	42.3	3.88	1.05		30.5	40.9	19.3	4.2	5.0

(** : p < 0.01)

2) 정치지도자

정치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지도자들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치지도자들의 국민요구만족도, 정치지도자들의 이타성, 강력한 지도력의 필요성 등을 설정하였다.

<표-15>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의 국민요구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의 원하는 바를 잘 구현시켜주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9%만이 긍정적인 보였으며(M=2.12) 7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0.005), 전공계열별(P<0.005)은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남자(M=2.36)가 여자(M=2.00)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자연계열(M=2.16)이 인문·사회계열(M=2.08)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M=2.20)이 2학년(M=2.03)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출신지별로는 남제주군(M=2.17), 제주시(M=2.16), 북제주군(M=2.14), 서귀포시(M=2.05), 기타(M=1.95) 순으로 종교별로는 불교(M=2.24), 천도교(M=2.22), 기독교(M=2.06), 기타종교(M=2.04), 무교(M=2.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6>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이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10%만이 정치지도자의 이타성을 인정하였지만(M=1.99) 7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전공계열별(P< 0.05)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연계열(M=2.15)이 인문·사회계열(M=1.84)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남자(M=2.17)가 여자(M=1.90)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1학년(M=2.09)이 2학년(M=1.88)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신지별로는 기타(M=3.00), 북제주군(M=2.06), 서귀포시(M=2.03), 제주시(M=2.01), 남제주군(M=1.92) 순으로 종교별로는 천도교(M=2.19), 기독교(M=2.08), 불교(M=1.99), 무교(M=1.92), 기타종교(M=1.9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7>에서는 강력한 지도력의 필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바른 판단과 확실한 소신을 가질 때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

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M=4.08) 1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15> 국민요구 만족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45	2.12	1.00	2.6	7.0	18.9	41.9	29.5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 · 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32.4	2.36	1.05	20.176 ^{***}	3.6	10.2	27.0	36.5	22.6
	여	67.6	2.00	0.96		2.1	5.4	15.1	44.5	32.7
학년별	1학년	49.9	2.20	1.02	5.193	2.6	7.8	22.3	40.5	26.5
	2학년	50.1	2.03	0.98		2.6	6.1	15.6	43.3	32.4
전공 계열별	인문·사회계	46.6	2.08	0.92	24.034 ^{***}	1.6	5.6	17.8	48.4	26.4
	자연계	53.4	2.16	1.09		3.8	8.6	20.1	34.5	33.0
출시지별	제주시	35.0	2.16	1.03	1.002	3.0	7.4	18.2	42.9	28.0
	서귀포시	16.9	2.05	0.93		2.1	4.2	20.3	43.4	30.1
	남제주군	16.9	2.17	1.03		2.8	9.1	18.2	42.0	28.0
	북제주군	21.0	2.14	1.01		2.8	7.3	19.8	41.2	28.8
	기타	10.2	1.95	0.95		1.2	5.9	17.6	37.6	37.6
종교별	기독교	20.0	2.06	0.98	2.448	3.0	5.4	17.3	43.5	31.0
	불교	31.2	2.24	1.06		3.4	10.2	20.1	39.8	26.5
	천도교	3.8	2.22	0.94		0.0	9.4	28.1	37.5	25.0
	기타종교	2.7	2.04	0.82		0.0	4.3	21.7	47.8	26.1
	무교	42.3	2.04	0.97		2.2	5.0	17.9	42.9	31.7

(*** : p < 0.005)

<표-16> 정치지도자의 이타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1.99	1.53	4.4	6.2	12.9	33.1	43.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32.4	2.17	1.15	0.493	5.5	7.7	19.7	32.5	34.7
	여	67.6	1.90	1.68		3.9	5.4	9.6	33.5	47.5
학년별	1학년	49.9	2.09	1.85	0.519	4.0	6.2	16.1	34.8	38.6
	2학년	50.1	1.88	1.11		4.7	6.1	9.7	31.4	48.0
전공 계열별	인문·사회계	46.6	1.84	0.99	9.923*	2.9	4.3	11.9	35.1	45.7
	자연계	53.4	2.15	1.96		6.1	7.9	14.0	31.0	40.9
출시지별	제주시	35.0	2.01	2.08	0.232	2.7	6.4	12.8	34.8	42.9
	서귀포시	16.9	2.03	1.15		5.6	5.6	16.8	30.1	42.0
	남제주군	16.9	1.92	1.08		3.5	6.3	14.7	30.1	45.5
	북제주군	21.0	2.06	1.11		5.6	4.5	10.2	35.6	44.1
	기타	10.2	3.00	1.24		7.1	9.4	8.2	32.9	42.4
종교별	기독교	20.0	2.08	2.63	0.655	4.2	6.5	7.7	37.5	43.5
	불교	31.2	1.99	1.12		4.2	7.2	15.2	30.7	42.8
	천도교	3.8	2.19	1.18		6.3	6.3	21.9	31.3	34.4
	기타종교	2.7	1.91	0.95		0.0	8.7	13.0	39.1	39.1
	무교	42.3	1.92	1.10		4.8	5.0	12.9	32.5	44.8

(* : p < 0.05)

<표-17> 강력한 지도력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4.08	1.43	40.4	35.3	13.9	8.5	1.8	100

3) 준법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법률과 명령 그리고 이러한 제반 법률을 지키는 준법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률적용의 평등성, 법률제정의 상대성,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의지 등을 설정하였다.

<표-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률적용의 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법률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10%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M=2.04) 11%가 중립적인 반응을 그리고 77%가 법률적용의 불평등성을 느끼고 있었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M=2.22)가 여자(M=1.95)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학년(M=2.12)이 2학년(M=1.95)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인문·사회계열(M=2.05)학생이 자연계열(M=2.02)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신지별로는 제주시(M=2.09), 서귀포시(M=2.07), 북제주군(M=2.05), 기타(M=2.05), 남제주군(M=1.88) 순으로 종교별로는 기타종교(M=2.35), 천도교(M=2.22), 불교(M=2.08), 무교(M=2.01), 기독교(M=1.9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8> 법률적용의 평등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 · D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2.04	1.00	2.6	8.0	11.7	45.8	31.8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 인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M	S · D	F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32.4	2.22	1.06	15.580 ^{**}	2.6	12.8	15.7	41.6	27.4
	여	67.6	1.95	0.95		2.6	5.8	9.8	47.8	34.0
학 년 별	1학년	49.9	2.12	1.00	4.067	1.7	10.9	14.5	44.1	28.9
	2학년	50.1	1.95	0.98		3.5	5.2	9.0	47.5	34.8
전 공 계열별	인문·사회계	46.6	2.05	0.98	1.918	2.9	7.7	9.9	50.0	29.5
	자연계	53.4	2.02	1.01		2.3	8.4	13.5	41.1	34.8
출시지별	제 주 시	35.0	2.09	1.02	1.799	1.7	10.8	14.5	40.5	32.4
	서귀포시	16.9	2.07	1.06		4.2	7.0	13.3	42.7	32.9
	남제주군	16.9	1.88	0.92		2.1	4.9	9.8	45.5	37.8
	북제주군	21.0	2.05	0.97		4.0	5.6	8.5	55.4	26.6
	기 타	10.2	2.05	0.96		1.2	10.6	9.4	49.4	29.4
종 교 별	기 독 교	20.0	1.95	0.93	2.469	1.2	7.1	11.9	45.2	34.5
	불 교	31.2	2.08	0.95		2.3	6.4	15.9	47.7	27.7
	천 도 교	3.8	2.22	1.24		3.1	18.8	12.5	28.1	37.5
	기타종교	2.7	2.35	1.23		8.7	13.0	4.3	52.2	21.7
	무 교	42.3	2.01	1.02		3.1	8.4	9.0	45.7	33.9

(** : p < 0.01)

<표-19> 법률제도의 상대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 응 구 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845	3.34	1.20	17.2	34.0	20.3	21.4	7.0	100

<표-19>에서는 법률제정의 상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법률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0%가 중립적인 입장을 51%가 법률제정의 상대성을 반응하였다.

<표-20>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의지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하 아니다	계
845	2.60	1.19	5.4	21.2	22.4	30.1	20.9	100

<표-20>에서는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된 법률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M=2.60) 5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政策

1) 복지

경제성장의 편익과 과실이 유산자나 특권층과 같은 사회의 특수계층에게 독점됨이 없이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골고루 享有되는 것으로의 복지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분배적 소외성, 복지선택, 빈곤의 책임 등을 설정하였다.

<표-21>에서는 빈곤의 책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정부가 빈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M=3.25), 24%가 중립적 반응, 그리고 2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21> 빈곤의 책임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하 아니다	계
845	3.25	1.14	14.3	31.4	24.9	23.7	5.7	100

<표-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배적 소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의 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11%만의 분배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M=2.18), 17%가 중립적 반응, 그리고 7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0.005)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M=2.38)가 여자(M=2.08)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학년(M=2.23)이 2학년(M=2.12)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인문·사회계열(M=2.20)학생이 자연계열(M=2.16)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신지별로는 제주시(M=2.21), 서귀포시(M=2.20), 북제주군(M=2.18), 남제주군(M=2.14), 기타(M=2.05) 순으로 종교별로는 천도교(M=2.50), 불교(M=2.34), 기타종교(M=2.22), 무교(M=2.09), 기독교(M=2.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3>에서는 복지선택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와 우리 집은 국가로부터 공평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11%만이 공평한 복지혜택을 인정하고 있으며(M=2.54), 40%가 중립적 반응, 그리고 4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종교별(P< 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M=2.61)가 여자(M=2.51)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1학년(M=2.57)이 2학년(M=2.52)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자연계열(M=2.58)학생이 인문·사회계열(M=2.52)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신지별로는 제주시(M=2.65), 서귀포시(M=2.51), 기타(M=2.51), 남제주군(M=2.48), 북제주군(M=2.4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2> 분배적 소외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845	2.18	0.99	2.1	9.5	17.8	45.1	25.6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 인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32.4	2.38	1.08	25.877 ^{***}	4.0	12.4	23.0	38.7	21.9
	여	67.6	2.08	0.92		1.2	8.1	15.2	48.2	27.3
학 년 별	1학년	49.9	2.23	1.00	2.657	2.6	9.0	21.3	43.1	23.9
	2학년	50.1	2.12	0.97		1.7	9.9	14.2	47.0	27.2
전 공 계열별	인문·사회계	46.6	2.20	0.96	1.435	2.0	8.8	18.9	47.3	23.0
	자 연 계	53.4	2.16	1.02		2.3	10.4	16.2	42.9	28.2
출시지별	제 주 시	35.0	2.21	0.94	1.850	2.0	7.8	21.3	47.0	22.0
	서귀포시	16.9	2.20	1.10		4.2	9.1	19.6	37.1	30.1
	남제주군	16.9	2.14	1.01		0.7	14.0	12.6	44.1	28.7
	북제주군	21.0	2.18	0.96		1.7	9.6	17.5	47.5	23.7
	기 타	10.2	2.05	0.97		2.4	8.2	10.6	49.4	29.4
종 교 별	기 독 교	20.0	2.04	0.97	3.238	2.4	7.1	13.1	46.4	31.0
	불 교	31.2	2.34	1.04		2.7	13.3	21.2	41.3	21.6
	천 도 교	3.8	2.50	0.98		3.1	15.6	18.8	53.1	9.4
	기타종교	2.7	2.22	0.95		0.0	13.0	17.4	47.8	21.7
	무 교	42.3	2.09	0.94		1.7	7.0	17.4	46.2	27.7

(*** : p < 0.005)

<표-23> 복지선택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2.54	1.37	1.1	9.9	40.6	35.4	12.9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 인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M	S · 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32.4	2.61	0.92	0.063	2.2	11.7	42.7	31.4	12.0
	여	67.6	2.51	1.54		0.5	9.1	39.5	37.4	13.3
학 년 별	1학년	49.9	2.57	0.88	1.213	1.4	10.4	42.9	33.9	11.4
	2학년	50.1	2.52	1.73		0.7	9.5	38.2	37.0	14.5
전 공 계열별	인문·사회계	46.6	2.52	0.82	4.837	0.5	8.8	44.1	35.6	11.0
	자 연 계	53.4	2.58	1.80		1.8	11.5	36.4	35.1	15.0
출시지별	제 주 시	35.0	2.65	1.96	0.428	1.0	9.5	42.7	35.9	10.5
	서귀포시	16.9	2.51	1.00		1.4	14.0	37.8	28.0	18.9
	남제주군	16.9	2.48	0.89		0.7	10.5	38.5	36.4	14.0
	북제주군	21.0	2.47	0.85		0.6	8.5	41.2	36.7	13.0
	기 타	10.2	2.51	0.85		2.4	7.1	38.3	42.4	9.4
종 교 별	기 독 교	20.0	2.47	0.93	13.994**	1.2	10.2	39.5	32.3	16.8
	불 교	31.2	2.56	0.84		1.1	9.5	43.9	35.6	9.8
	천 도 교	3.8	2.78	1.01		3.1	25.0	25.0	40.6	6.3
	기타종교	2.7	3.83	6.41		0.0	13.0	30.4	43.5	8.7
	무 교	42.3	2.46	0.87		0.8	8.7	40.3	35.9	14.3

(** : p < 0.01)

2) 안보

국제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내적인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서의 안보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의 남침가능성,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 정부의 치안 관심도 등을 설정하였다.

<표-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세로 보아 북한의 남침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5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M=3.42), 25%가 중립적인 반응, 그리고 2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자(M=3.46)가 남자(M=3.33)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2학년(M=3.46)이 1학년(M=3.38)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인문·사회계열(M=3.48)학생이 자연계열(M=3.36)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신지별로는 북제주군(M=3.53), 남제주군(M=3.43), 제주시(M=3.40), 기타(M=3.38), 서귀포시(M=3.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5>에서는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안보태세는 확고하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안보태세에 자신이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M=2.57), 32%가 중립적 반응, 그리고 51%가 자신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M=2.78)가 여자(M=2.46)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학년(M=2.63)이 2학년(M=2.50)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자연계열(M=2.62)학생이 인문·사회계열(M=2.52)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26>에서는 정부의 치안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나와 우리 집의 재산이나 신상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1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M=2.39), 29%가 중립적 반응, 그리고 58%가 정부가 치안유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0.005)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M=2.61)가 여자(M=2.29)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학년(M=2.46)이 2학년(M=2.32)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자연계열(M=2.41)학생이 인문·사회계열(M=2.37)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24> 북한의 남침가능성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3.42	1.00	10.4	43.8	25.6	16.9	3.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 인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32.4	3.33	1.11	16.871 ^{**}	12.8	38.0	22.3	21.9	4.7
	여	67.6	3.46	0.94		9.3	46.6	27.0	14.5	2.5
학 년 별	1학년	49.9	3.38	1.04	4.854	10.9	41.0	24.9	19.2	3.6
	2학년	50.1	3.46	0.96		9.9	46.6	26.0	14.7	2.8
전 공 계열별	인문·사회계	46.6	3.48	0.97	2.525	10.8	45.9	25.0	15.8	2.3
	자 연 계	53.4	3.36	1.03		10.2	41.6	25.9	17.8	4.3
출시지별	제 주 시	35.0	3.40	1.02	3.073	11.5	40.5	25.7	19.3	2.7
	서귀포시	16.9	3.35	1.09		11.2	40.6	21.7	21.7	4.2
	남제주군	16.9	3.43	1.00		8.4	49.7	24.5	11.9	5.6
	북제주군	21.0	3.53	0.88		10.2	46.3	31.1	10.7	1.7
	기 타	10.2	3.38	1.01		9.4	45.9	20.0	22.4	2.4
종 교 별	기 독 교	20.0	3.43	1.01	0.594	9.5	47.0	20.2	20.2	2.4
	불 교	31.2	3.45	1.00		12.1	41.7	28.8	13.6	3.8
	천 도 교	3.8	3.56	1.01		15.6	43.8	25.0	12.5	3.1
	기타종교	2.7	2.96	0.98		0.0	39.1	21.7	34.8	4.3
	무 교	42.3	3.41	0.99		9.8	44.0	25.8	17.1	3.1

(** : p < 0.01)

<표-25>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2.57	0.96	3.7	12.1	32.4	40.8	11.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 인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M	S · 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32.4	2.78	1.08	14.444**	6.9	17.9	32.1	32.1	10.9
	여	67.6	2.46	0.88		2.1	9.3	32.6	45.0	11.0
학 년 별	1학년	49.9	2.63	0.98	0.700	3.6	14.5	34.1	37.2	10.7
	2학년	50.1	2.50	0.95		3.8	9.7	30.7	44.4	11.3
전 공 계열별	인문 · 사회계	46.6	2.52	0.94	1.675	3.8	9.0	33.8	41.9	11.5
	자 연 계	53.4	2.62	0.98		3.6	15.5	31.0	39.6	10.4
출시지별	제 주 시	35.0	2.56	0.89	1.785	1.7	13.2	33.1	43.2	8.8
	서귀포시	16.9	2.61	0.99		4.2	15.4	26.6	44.8	9.1
	남제주군	16.9	2.50	0.96		4.9	5.6	37.8	38.5	13.3
	북제주군	21.0	2.59	1.01		4.5	13.6	30.5	39.5	11.9
	기 타	10.2	2.56	1.07		5.9	10.6	34.1	32.9	16.5
종 교 별	기 독 교	20.0	2.48	0.95	0.900	3.0	11.9	26.8	47.0	11.3
	불 교	31.2	2.58	0.94		3.4	11.4	34.8	40.5	9.8
	천 도 교	3.8	2.81	1.15		6.3	21.9	34.4	21.9	15.6
	기타종교	2.7	2.52	0.99		4.3	8.7	34.8	39.1	13.0
	무 교	42.3	2.58	0.97		3.9	12.0	33.1	40.1	10.9

(** : p < 0.01)

<표-26> 정부의 치안 관심도 문항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2.39	1.02	3.9	9.0	29.0	38.6	19.5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32.4	2.61	1.16	22.303 ^{***}	9.1	9.9	32.5	30.3	18.2
	여	67.6	2.29	0.93		1.4	8.6	27.3	42.6	20.1
학년별	1학년	49.9	2.46	1.08	6.578	5.9	9.2	28.7	37.4	18.7
	2학년	50.1	2.32	0.96		1.9	8.7	29.3	39.7	20.3
전공 계열별	인문·사회계	46.6	2.37	0.98	3.547	3.4	7.2	31.5	39.0	18.9
	자연계	53.4	2.41	1.06		4.6	10.7	26.1	38.6	20.1
출시지별	제주시	35.0	2.40	1.01	1.310	3.4	9.8	29.1	39.2	18.6
	서귀포시	16.9	2.38	1.09		3.5	12.6	27.3	32.2	24.5
	남제주군	16.9	2.34	1.04		4.2	8.4	25.9	40.6	21.0
	북제주군	21.0	2.42	0.96		3.4	7.9	31.6	41.2	15.8
	기타	10.2	2.40	1.07		7.1	3.5	31.8	37.6	20.0
종교별	기독교	20.0	2.43	1.02	1.967	2.4	12.5	31.0	33.9	20.2
	불교	31.2	2.41	0.97		2.7	9.8	30.3	40.2	17.0
	천도교	3.8	2.53	1.32		12.5	9.4	21.9	31.3	25.0
	기타종교	2.7	2.43	1.08		8.7	4.3	21.7	52.2	13.0
	무교	42.3	2.34	1.03		4.5	7.0	28.0	39.5	21.0

(*** : p < 0.005)

3) 정치적 자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공개적인 정치경쟁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로서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안보와 통제, 외상의식, 국내질서와 통제 등을 설정하였다.

<표-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안보와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안보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약간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47%가 안보를 위해서 정치적 자유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M=3.34), 32%가 중립적 반응, 그리고 19%는 통제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었다.

<표-27> 안보와 통제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3.34	0.99	9.3	38.1	32.9	15.7	3.9	100

<표-28> 외상의식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45	4.04	1.48	40.2	34.9	13.6	7.2	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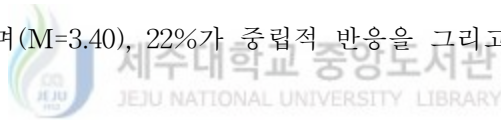
<표-28>에서는 외상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가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나는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5%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응하였으

며(M=4.04), 13%가 중립적 반응, 그리고 11%만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표-29> 국내질서와 통제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N	M	S · D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하 아니다	계
845	3.40	1.10	14.7	39.1	22.2	19.4	4.6	100

<표-29>에서는 질서와 통제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내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설문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성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3%가 정치적 자유제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M=3.40), 22%가 중립적 반응을 그리고 25%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V. 結 論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정치체제에 대한 제주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성별, 학년별, 계열별, 성장지별, 종교 등의 諸變因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배경변인에 따라 정치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알몬드와 포웰의 정치체계 분석모형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諸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이념, 일체감, 정치적 기구, 참여, 정치지도자, 준법, 복지, 안보, 정치적 자유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대학별로 직접 찾아가서 직원과 조교들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를 실시 회수하였다. 표집된 인원은 968명이었으나 '성의도검증문항'에 일관성이 없는 반응의 응답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된 표집대상은 845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문항 수는 배경변인 5문항과 리커트형 28문항(성의도 1문항 포함)으로 평균(M), 표준편차(S·D), 백분율(%), T-테스트, 변량분석(ANOVA)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한 조사의 반응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이념에 대한 의식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체 응답자의 40%정도가 부정적이거나 판단에 자신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체감에 대한 의식에서는 국가이익 우선 태도의 국가자체에 대한 수직적인 일체감이 32%, 민족적 자부심, 민주주의 수행능력 등 국민 개인 상호간에 대한 수평적인 일체감이 평균 55%로 수직적인 일체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수평적인 반응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일체감보다 국민들 상호간의 일체감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기구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정당과 국회에 대하여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국민과 대화를 통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단체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에 대한 의식에서는 대학생들의 41% 정도가 정치적 효능감을 갖지 못한

결과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38%를 보이고 있으며 32%정도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학생들이 7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의식에서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상당한 불신의식을 가지고 있다. 준법에 대한 의식에서는 대학생들은 법률이 국민들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보았고, 우리 나라의 지나친 법률개정에 회의를 품고 법률의 지속성을 원하고 있었으며 불합리한 법률을 합리적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복지에 대한 의식에서는 제주지역 전문대학생들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개인자신보다 정부측에 두고 있으며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공정한 복지혜택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분배적 소외현상까지 있다고 보고 있다. 안보에 대한 의식에는 북한이 남침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안보태세는 불안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의식에서는 우리 나라 국내외 상황으로 볼 때 안보를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국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배경변인별로 나타난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의식에서는 남학생이 국가이념 이해도, 국민요구 만족도, 법률적용의 평등성, 분배적 소외성, 안보태세, 정부의 치안관심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구별능력, 체제이념의 합법성, 정치적 참여기회, 복지선택, 북한의 남침가능성 등에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법률은 모든 사람에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고, 우리 사회는 빈부의 차가 점점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학년별에 따른 의식에서는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2학년이 1학년보다 조금은 부정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넷째, 전공계열별에 따른 의식에서는 국민요구만족도, 정치지도자의 이타성에서만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출신지별에 따른 의식에 있어서는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종교에 따른 의식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구별능력, 복지선택에

서만 의의 있는 차이를 보였을 뿐 나머지는 전혀 의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

앞에서 살펴본 제주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전체적인 반응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정치가가 정치적 불안의 악순환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각 정권마다 서로 다투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 실현을 강조하여도 국민 대중의 정치의식과 정치엘리트들의 자질이 상향되지 않고서는 민주정치발전이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국정치가 드러낸 발전저해요인의 주요 원인은 상황적인 것보다 정치인의 자질과 신념에 기인하는 점이 더 크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체념의식이 팽배해지고 학생들은 정치체제에 대하여 민주정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간의 한국 정치가 정치지도자의 권위적 획일주의, 각 정치집단의 분파주의, 여야간의 극한대결과 흑백논리, 대다수 정치인들의 부패 등으로 발전저해의 진통을 겪어왔다.

이념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치적 기구, 정치지도자, 복지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식인 특유의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안보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와 높은 준법의식,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높은 개혁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민주시민이 되고자하는 욕구와 민주시민자질을 소유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 자연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학생이 더 많은 부정적인 의식을 소유하는 것은 정치 그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성별의 내면적 속성, 교육환경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년별에 따라 약간의 부정적인 의식을 소유하지만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출신지와 종교에 따라서 정치의식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적어도 제주도 지역에서 출신지와 종교는 정치의식이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체제는 내면에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호작용 하는 집단인 정치적 기구에 대하여 부정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정치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시대정신과 역사의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지도이념을 그것과 접목시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해 가는 정치지도자와 전국민 개개인의 복리가 보장된 정의로운 부의 분배라 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하여 안정하지

못한 성향이 있고, 정치발전에 있어서도 안정하지 못한 성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정치체제의 안정과 정치발전에 눈을 돌리지 못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 고명호(1994), 「現代政治學理論」, 博英社.
- 김호진(1997), 「韓國政治體制論」, 博英社.
- 李克燦(1997), 「政治學」, 法文社.
- 李永鎬(1977), 「韓國人の 價値觀」, 一志社.
- 鄭允武(1982), 「現代政治心理論」, 博英社.
- 鄭仁與 外(1983), 「政治學 大辭典」, 博英社.
- 鄭鳳輝(1983), 「法學通論」, 創文閣.
- 車基壁(1980), 「民主主義의 理念과 歷史」, 한길사.
- 崔 明(1981), 「比較政治學序設」, 法文社.
- 韓培浩(1984), 「韓國의 政治」, 博英社.
- 朴容憲(1980), “現代韓國人の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韓國思想과 倫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成義英(1972), “정치의식의 민주화,” 「논문집」 제5집, 연세대학교.
- 李廷植(1965), “韓國政治文化의 分析研究,” 「논문집」 제2집, 동국대학교.
- 李京求(1968), “都市民과 地方民의 政治意識比較研究,” 「논문집」 제13집, 성균
관대학교.
- 李洪九(1977), “韓國의 政治文化와 政治發展,” 韓國政治學會報, 第11輯.
- 田溶新(1969), “韓國大學生의 政治的 態度,” 「논문집」 제15집, 고려대학교.
- Almond, Gabriel A. & G. Bingham Powell, Jr.(1966), *Comparative Politics :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 Little and Co.).
- Almond, Gabriel A. & G. Bingham Powell, Jr.(1978), *Comparative Politics :
System, Process and Policy*, 2nd ed.(Boston : Little and Co.).
- Almond, Gabriel A.(1960), "Introduction : A Functional Approach to
Comparative Politics." in Gabriel A. Almond & James S. Coleman(eds),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princeton, N. J. : Princeton Univ.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Cheju Junior College Students about Korean Political System

Kang Cheol-Seung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Han Seok-J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political consciousness Cheju junior college students have about Korean political system, and to know if there is any difference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sex, school years, majors, the areas of their growth, religions, etc. In order to understand Korean political systems this study analyzes those factors to know if they have any different politic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background factor. The frame of this analysis is made by Almond and Powell analysis model of political system.

This research has the results as follows :

No one denies that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political is in a vicious circle. All statesmen cry for democracy and its realization in every regime. However, only public political consciousness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adership mak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possible. Politicians qualities and creed have more negative effect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government. So more people have given their indifference to the government and students have wante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Meanwhile, Korean government has undergone many problems such as the regimentation of politicians,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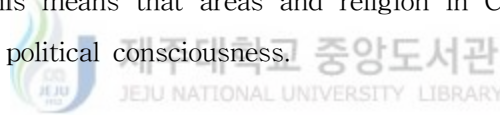
factionalism of each political group, an extrema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camp and the opposition party, and so on.

1. The students responded to the ideology in the most affirmative, but to political structures, politicians, and welfare in the negative. This means that they have resistant consciousness usually found in well-educated people, strong will never to give up political freedom in any case, highly anxious will to reform unreasonable laws, and the mind to respect law.

2. Male students rather than female, art and social majors rather than science, have more negative consciousness. It means that Korean political systems have some problems in self and that there is some difference according to attributes of sex and educational environment.

3. The degree of the negative consciousness is different in each grade. However, it is small.

4. The areas of birth and religion make little difference of political consciousness. This means that areas and religion in Cheju don't have any effect on forming political consciousness.



Concludingly, to take away the negative consciousness and to stabilize political system, we must have a political organization all people can fully support and trust. In addition, we must have a respectful political leader who can correctly realize the spirit of times and the trend of history development and connect his own political leadership to them to build and realize the country's object. Except the above, the last thing left we must do for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al system, is to offer good welfare system for people, righteous distribution of wealth, guaranteeing individual prosperity for all of the peopl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 附 錄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

이 질문지는 대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대답한 내용은 모두 숫자로 통계 처리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각 문항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 강 철 승

문 항	평 가 도				
	확실히 아니다	아닌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그런 것 같 다	확실히 그렇다
1. 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우리의 국가이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3. 국회·정당외에도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조직과 단체가 더 있어야 한다.	1	2	3	4	5
4. 나는 정치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	1	2	3	4	5
5. 우리 나라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1	2	3	4	5
6. 법률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이 좋지 않다.	1	2	3	4	5
7. 우리 나라 안보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약간의 통제는 불가피 하다.	1	2	3	4	5
8. 내가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사회는 좋지 않다.	1	2	3	4	5
9. 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택하겠다.	1	2	3	4	5

문항	평가도				
	확실히 아니다	아닌것 같다	잘모르 겠다	그런 것 같다	확실히 그렇다
10. 전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내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11. 정부는 나와 우리 집의 재산이나 신상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나의 투표행위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하고 있다.	1	2	3	4	5
13.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의 잘못 때문이다.	1	2	3	4	5
14. 국가의 이익이 위하여 법률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1	2	3	4	5
15. 국회가 없더라도 정치는 잘 될 수 있다.	1	2	3	4	5
16. 나는 한국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17.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 졌으면 좋겠다.	1	2	3	4	5
18. 우리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의 원하는 바를 잘 구현시켜 주고 있다.	1	2	3	4	5
19. 불합리하게 결정된 법률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2	3	4	5
20.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키워나갈 능력과 자신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1. 우리의 체제이념은 국제적으로 북한보다 더 많은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	1	2	3	4	5
22. 우리사회에서는 빈부의 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	2	3	4	5
23. 나와 우리 집은 국가로부터 공평한 혜택을 받고 있다.	1	2	3	4	5

문항	평 가 도				
	확실히 아니다	아닌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그런 것 같 다	확실히 그렇다
24. 국내외 정세로 보아 북한의 남침가능성은 높다.	1	2	3	4	5
25. 북한의 남침에 대한 우리의 안보태세는 확고하다.	1	2	3	4	5
26. 우리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더 노력한다.	1	2	3	4	5
27. 지도자는 바른 판단과 확실한 소신을 가질 때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	1	2	3	4	5
28. 우리 나라 정당들은 개인이나 사회의 이익과 감정을 수렴하기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1	2	3	4	5

※ 다음 문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학년은 ? 1) 1학년 2) 2학년
3. 귀하의 전공 계열은 ? 1) 자연계열 2) 인문·사회계열
4. 귀하의 출신지는 ?
 1) 제주도 2)서귀포시 3) 남제주군 4) 북제주군 5) 기타
5. 귀하의 종교는 ?
 1) 기독교 2) 불교 3) 천도교 4) 기타종교 5) 무교